

Philanthropy & Creating Social Value



지역사회 투자

기업의 존립기반인 사회가 발전하도록 돕는 것은 기업의 당연한 책임임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기업 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전략적 경영활동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소비자와 주주,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수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는 기업들을 선호하면서 기업의 비재무적 요인들이 회사의 재무 성과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서치기관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 중 절반이 넘는 수가 사회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기업, 즉 '착한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으며, 가치소비를 추구하는 트렌드는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밀레니얼 세대(1980년~2000년 출생)는 단지 돈만 벌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 사회 및 환경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투자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이러한 '사회공헌'을 고객과 신한, 사회의 가치를 함께 높이는 '상생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이라는 본업과 연계된 활동을 기반으로 '복지, 문화, 환경' 등 3대 사회공헌 중점분야를 선정해 자원봉사 및 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너와 나 우리 모두의 공존과 공감, 공생을 생각하는 사회공헌

회사와 사회 구성원 모두의 가치가 제고되는 '상생'을 추구하는 신한금융 그룹은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문화예술, 환경을 위한 지원사업과 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대축제'는 2008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4~5월 전 그룹 임직원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는 행복'을 슬로건으로 진행된 2016년 자원봉사대축제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동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터 환경조성' 등 1천 회가 넘는 봉사활동이 기간 중에 실시되어 17,900여명의 직원과 가족들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우리 전통문화의 가치보존을 통해 '문화재 지킴이 대표은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신한은행은 전국 각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재 가꾸기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2015년 '문화재 보존 봉사단'을 출범해 문화재 보수작업과 전통놀이 체험, 역사교육 등 문화재 활용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세나 활동도 지속해 2009년 금융권 최초로 '신한음악상'을 제정하여 클래식 유망주를 발굴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수 국내파 음악영재를 발굴해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육성한다는 취지에 걸맞게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성악 4개 부문별 수상자에게는 국내 최고 수준의 장학금과 해외유명음악학교 단기연수, 신한아트홀 무료대관을 통한 연주회 개최 등 실질적이고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합니다. 한편, 신한은행은 소외계층 문화나눔을 위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문화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월 '문화가 있는 날'에 공연나눔을 실시하여, 2016년 총 800여명에게 문화예술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23회째를 맞는 '신한환경사진공모전'은 자연의 소중한함과 환경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환경사진공모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환경보전 활동을 위해 2007년부터 서울시립대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한 '청소년 환경 자원봉사 캠프'를 개최해 청소년들이 도심에서 벗어나 농촌 환경에서 생활하며 자연의 소중한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파급효과에 중점을 둔 진정성 있는 소통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을 모토로 하는 신한 사회공헌 사업은 장기적·지속적 지원으로 사회적 파급효과와 성과를 높여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룹사에서 출연한 1,000억 원의 재원을 기반으로 2006년 설립한 ‘신한 장학재단’은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에 열중하지 못하는 인재를 발굴하여 국가의 동량으로 키워나가고 있으며, 설립 이래 6,031명의 장학생에게 226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한편, 2005년부터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장애청년 드림팀 6대륙에 도전하다’는 13년 동안 760명의 장애·비장애 청년들이 세계 각지에서 자기주도적인 연수활동을 펼치면서 역량강화, 장애인식 개선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한카드 2005년부터 금융권 최초의 기부 전용 사이트 ‘아름인(arumin.shinhancard.com)’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말 기준으로 26만 여명의 고객이 참여하여 총 51억 원을 모금하였고, 금융권 대표 기부채널로서 소액 기부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부터 ‘아름인 도서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현재 452개(해외 3개 포함)의 도서관을 개관했습니다. 아름인 도서관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 대상으로 친환경 독서 환경과 양질의 권장도서 지원을 위해 시작하였으며 전국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아동병원 등에 도서관을 지원했습니다.

나아가 신한금융그룹은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현지 니즈에 부합하는 글로벌 CSR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2008년부터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과 함께 캄보디아,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등 개발도상국에서 의료 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진피해로 도움이 필요한 네 팔을 찾아 현지학교 시설보수와 문화교류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 밖에도 베트남 저소득 가정 청년들을 위한 직업훈련센터를 건립해 실질적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활동으로 90%가 넘는 평균 취업률을 달성하며 청년들의 역량 강화와 소득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이어 2016년 미얀마에 신한카드 ‘아름인 해외 봉사단’을 파견해 위생교육과 학교 환경개선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자원봉사 시간

266,325시간

2016년 그룹* 임직원 69,981명은 266,325시간 동안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으며, 총 494억 원을 사회공헌에 투자하여 취약계층 지원 및 글로벌 사회공헌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8개 그룹사 외 5개 그룹사를 포함한 전 그룹사 기준

투명한 기부금 운영체계

신한은 사회적 기여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을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한 출연금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 지침에 따라 '출연금실무위원회'를 두어 집행결정을 심의하고,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사회 사전결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또한, 출연자산이 해당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되는 조건에 한해 출연을 진행합니다. 만일 대주주가 공익법인에 출연하도록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공익법인 사업으로부터 은행과 자회사, 임직원이 우대를 받는 등 대가성이 있는 경우에는 출연을 제한하고 있으며, 매년 공익법인의 사용내역을 점검해 이에 저촉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출연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 출연 현황과 적정성 등은 매년 이사회에 보고하며, 출연 결과는 신한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스포츠 스폰서십

스포츠의 치열함과 감동적인 스토리 그리고 정정당당한 승부는 상호존중과 최고지향이라는 신한금융그룹의 핵심가치와 부합합니다. 신한금융그룹은 '기업은 고객과 상생 발전해야 한다'는 신념 하에 국내에서 스포츠가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고객이 스포츠에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 33번째 대회를 치르게 되는 신한동해오픈은 신한금융그룹의 대표적인 스포츠 스폰서십으로

국제적인 우수 선수들을 육성하여 한국 골프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신념으로 1981년 창설되었습니다. 초창기 대회부터 일본, 대만 등지에서 유명 프로골퍼들이 대거 참석해 국제적인 대회로 명성을 떨치고 있으며, 국내 골프의 저변을 확대하고 사회체육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에스버드 농구단은 2004년 공식 창단 후 불과 1년 뒤인 2005년 여자프로농구 여름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신흥 명문구단으로 도약하였고, 2012년까지 국내 프로스포츠 사상 전무후무한 6년 연속 통합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레알 신한'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던 여자프로농구 최고 명문구단입니다.

2014년 인천으로 연고지를 이전하여 한국여자농구 발전은 물론 건전한 스포츠 여가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유소년클럽 운영, 농구클리닉 등을 통한 재능기부와 소외계층 초청 및 수익금 기부활동을 통한 따뜻한 금융의 실천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2011년 국내 스포츠 유망주를 발굴해 중장기적으로 지원하는 '신한 루키 스폰서십 프로그램'을 출범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제적 선수로 성장할 기량을 갖추고 있으나 종목이 활성화 되지 않거나 훈련 여건이 열악한 선수를 발굴해 육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대표적 성공사례는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국내 체조 역사상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한 양학선 선수이며, 최근에는 2018년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국가적 행사인 동계올림픽에 대비해 비인기종목인 스키 종목 유망주 최재우, 이광기, 김마그너스 선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청년들을 위한 '취업으로 통하는 문'



베트남 호치민에 사는 스물다섯 살 청년 누웬 민 트롱(Nguyen Minh Trung)은 이제 한국기업의 어엿한 정규직 직원입니다. 그에게는 부모님과 3명의 동생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경비원으로 일하지만 집안 사정은 먹고 살기에도 빠듯했습니다. 누웬은 대학 진학이 여의치 않자 곧장 벌이에 나섰습니다. 초등학교를 가르치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에 신한베트남은행이 후원하는 빈곤 청년을 위한 직업훈련센터인 '한베청년경제기술교육센터'의 한국어 교육 과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어에 대한 관심은 줄곧 가지고 있던 터라 주저 없이 등록했고, 교육센터에서 쌓은 한국어 실력으로 취업한 한국기업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보다 3배가 넘는 월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한베트남은행은 글로벌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 11월 베트남 호치민 12군 지역에 한베청년경제기술교육센터를 열었으며, 4년째 호치민 시의 저소득 가정 청년들을 위해 센터 운영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호치민 12군 중등경제기술학교에 교육 인프라 제공과 학습기자재 보급, 한국어 강사 파견 등 한국어교육을 지원해 왔습니다. 센터 운영 이후로는 이곳에서 과정을 수료한 많은 저소득 가정 청년들이 취업의 꿈을 이뤘습니다. 이는 어려운 환경에 놓인 현지 청년들의 취업과 소득 증대에 직업 교육이 얼마나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센터 교육 과정은 정규 수업뿐만 아니라 문화·취업 특강과 체육 활동 등으로 다양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한국어 초급반을 수료한 부 티 퀴(Vu Thi Quy)는

'센터 수료 선배와의 대화, 취업특강, 한국인 선생님과의 프리토킹은 취업에 자신감을 심어준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교육생들은 센터에서 한국문화를 배우고 체육대회에 참가하면서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반 친구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며 즐거운 추억도 쌓습니다.

1기생부터 5기생까지 평균 취업 및 진학률은 90%에 달합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청년들의 역량 강화와 소득 수준 향상 지원'이라는 1차 목표는 물론이고, 베트남에서의 대한민국 국가 이미지 개선과 신한은행의 호감도 증진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지 지역사회와의 아름다운 상생(相生)을 보듬는 신한베트남은행의 오늘은 진정한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인류 생활에 공헌하는 신한은행의 내일을 상징합니다.